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두 번째 시즌

한층 강력한 매력을 뽐내낼 뮤직토크쇼 <더 시즌즈>의 두 번째 막이 올랐다. 1년을 네 개의 시즌으로 나누고 시즌별로 MC가 바뀌는 신개념 음악 토크쇼를 표방한 <더 시즌즈>가 편견 없는 시선과 자유분방한 바이브로 호평받은 초대 MC 박재범을 잇는 두 번째 시즌의 진행자로 선택한 아티스트는 그룹 잔나비의 대체 불가 보컬 최정훈. 프로그램 타이틀도 최정훈이 2021년에 직접 작사, 작곡한 곡명을 따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으로 정해졌는데, 곡 제목처럼 매주 일요일 시청자들에게 밤의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낭만을 한가득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MC 최정훈, 따뜻하고 안정적인 진행으로 호평

5월 14일 첫 방송을 탄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에는 가수 김창완, 장기하, 박정현, 미노이와 배우 이동휘 등이 출연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설렘 가득했던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무엇보다 최정훈은 데뷔 이후 첫 지상파 프로그램 단독 MC라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담백한 입담과 따뜻하고 능숙한 진행 솜씨를 선보이며 진행자로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최정훈이 언더그라운드 시절부터 수많은 무대를 경험하며 차근차근 쌓아온 내공과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 매주 일요일 밤 10시 55분 **KBS2**





KBS 한국어연구회, 창립 40주년 맞아

KBS 한국어연구회 40주년 맞이 기념행사가 4월 21일 KBS 시청자광장에서 열렸다.

KBS 소속 모든 아나운서가 참여하고 있는 KBS 한국어연구회는 방송언어를 품위 있게 순화하고 표준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1983년 4월 23일 발족한 이래 지난 40년간 방송언어 순화와 표준 한국어 보급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김의철 사장은 축사를 통해 “위대한 유산 한국어는 KBS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어연구회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며, “사내를 비롯해 공공기관, 전국의 학교,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철역, 정류장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게시되는 한국어 포스터, 그리고 KBS 아나운서들이 직접 찾아 강의를 전하는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등 한국어연구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공영방송 KBS가 올바른 우리말을 알리기 위해 꼭 해야 하

는 사업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인 신동엽과 가수 윤하가 ‘아나운서가 선정한 한국어를 사랑하는 연예인’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방송인 신동엽은 2022년 KBS 한글날 특집 <고마워, 한글>을 진행하는 등 우리말 사랑에 앞장서 왔고, 가수 윤하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노랫말을 만들어 온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에게도 그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가 수여됐다.



수상소감



| 가수 윤하

멋진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가수들은 순위가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국가대표 개념이 없는데 오늘 ‘아나운서가 선정한 한국어를 사랑하는 연예인상’을 받으니 국가대표가 된 것 같이 기쁜 마음입니다.

대중음악 가사는 외래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슴 깊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건 한국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사를 쓰면서 한국어 공부를 늘 하는데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계속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완성된 가사를 한글로 적으면 그 모양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명을 다해서 이 감사패를 보며 열심히 음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장소원 국립국어원장

저는 KBS와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예전 서울대에 있을 때부터 현재는 국립국어원장으로서 KBS가 늘 함께 편안하게 일해주고 있어서 기쁩니다.

사실 오늘 ‘KBS 한국어연구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축사 발표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I·N·T·E·R·V·I·E·W



Q ‘KBS 한국어연구회’의 가장 큰 역할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위대한 유산 한국어>는 변해가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남용되고, 거친 표현은 많아지며, 본래의 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인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KBS 한국어연구회는 우리말의 오남용 사례를 바로잡고 국민들께서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른 한국어로 방송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Q ‘한국어를 사랑하는 연예인’을 뽑게 된 배경은?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원인 한국어는 어떤 한 분야에서, 또는 소수의 개인이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각 영역에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야 보존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오남용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연예인으로서 신동엽 씨와 윤하 씨는 각자의 분야에서 바른 한국어를 사용하려 노력하고 한국어의 말맛을 살린 진행과 노랫말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와 존중의 의미로 선정했고 시상하게 됐습니다.

Q ‘KBS 한국어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매년 있는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한국어 포스터 사업>, <교과서 낭독사업>, <한국어 상담전화(3838) 운영> 등의 사업을 잘 수행하고, <국립국어원>이나 <세종학당재단>, <한글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해 한국어 발전에 상승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한국어 포스터 사업>에서 종이 포스터를 없애고 전자계시판용 포스터를 만들어 만 2천여 전국 모든 학교, 아파트 4만 2천 곳, 공공기관과 대기업, 버스 정류장, 특히 최근에는 신분당선과 2호선 등 지하철 주요 역사에도 보급하고 게시 장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더 많은 곳에 한국어 포스터를 배포해 수신료의 가치와 바른 한국어를 위한 KBS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KBS에서 방송 진행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KBS 한국어연구회 아나운서들은 한국어 오용의 유혹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바른 한국어로 방송을 진행하고 한국어를 연구해 ‘KBS 한국어’가 표준 한국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우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KBS, 업계 최초 'ESG 경영' 본격 시동

KBS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산업계 최초로 개별 프로그램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업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 지구환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및 폐기물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며 탄소계산기와 친환경 인증제계를 무료 배포하는 등 방송미디어 업계의 'ESG 경영'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한국형 방송프로그램 탄소계산기의 개발과 보급이다. 지금까지 국내 방송미디어 업계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와 폐기물이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세운 사례가 전무했다. 하지만 KBS는 가장 선도적인 방송프로그램 탄소계산기로 평가받는 'BBC Albert 탄소계산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작년부터 스튜디오 프로그램인 <아침마당>과 야외촬영 프로그램인 <일꾼의 탄생>에 시범 적용해왔다. 프로그램이나 제작과정별 탄소 배출량을 파악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KBS는 이같은 해외 탄소계산기 시범 적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내년까지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방송프로그램 탄소계산기를 정부 및 공공기관과 함께 개발해 방송미디어 산업계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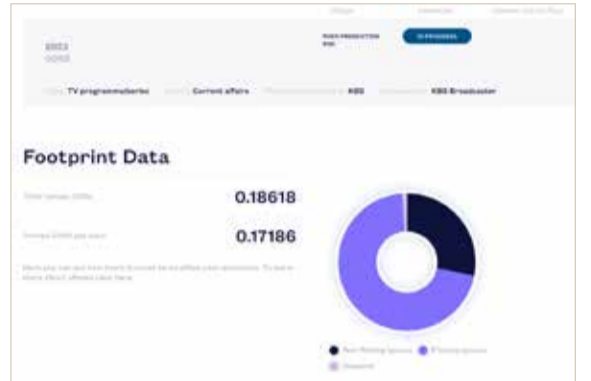
이와 함께 KBS는 올해 안으로 방송 제작가이드라인에 '친환경 및 탄소 저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 제작을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해 내년부터는 KBS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할 예정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제작과정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업무용 차량을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하고, 내년까지 KBS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법정 의무설치기준의 150% 이상으로 높여 전기차 사용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KBS는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데도 앞장설 방침이다. 우선 <다큐 인사이트>, <환경 스페셜> 등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최소 10편 이상의 환경·기후 변화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또한 <이웃집 찰스>, <사랑의 가족>, <강원래의 노래 선물> 등 다양성과 공동체에 주목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프로그램과 <드라마 스페셜>처럼 신인 작가와 스태프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열린 채널> 등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별도로 데이터화해 편성에도 참고하고, 그 결과를 매년 KBS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사 경영에 적용할 탄소 저감 시스템도 구축한다. KBS의 연중 온실가스 배출량 및 폐기물 총량을 파악해 경영보고서에 공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에는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탄소 저감 목표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의철 사장은 이와 관련해 "ESG는 공영방송이 선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면서 현실로 다가오는 글로벌 규범이기도 하다"며, "KBS는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경영'을 선도함은 물론, 관련 노하우와 인프라를 방송계에 보급하고 확장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침마당> 1회 제작시 탄소 배출량은 약 0.18톤으로 측정됐다.

한낮의 비타민 충전 <가요광장>의 새 얼굴, DJ 이은지

Cool FM (89.1MHz) <가요광장>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이후 자칫 나른해질 수도 있는 시간대에 다양한 노래와 청취자들의 사연으로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4월 24일부터 새롭게 <가요광장> DJ를 맡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더하고 있는 개그우먼 이은지 씨를 4월 20일 KBS 시청자광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만났다.

Q KBS와의 인연은?

고등학교 때부터 개그우먼의 꿈을 꿔다. K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네 번이나 응시했는데 모두 최종에서 탈락했다. 당시 '왜 내가 떨어졌을까?'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열정이 과했던 것 같다. 이번에 <이은지의 가요광장>으로 KBS에 오게 되어 정말 사랑했던 전 남자친구를 재회한 느낌이다.

Q <이은지의 가요광장> DJ 제의가 들어왔을 때 기분은?

평소 라디오를 좋아하고 라디오 DJ가 버킷리스트에 있었기에 많이 놀랐다. 한편으로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담당 작가와 PD를 만나 보니 입담이 워낙 좋고 나와 결이 맞아서 좋았다. 현재 '나영석 사단'에 속해 있는데, '최사단'(최유빈 담당PD), '가요광장 사단'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DJ 애칭으로 생각해둔 것이 있는지?

어떤 애칭이 좋을지 몇 가지 생각해봤다. 은지 DJ를 줄여서 '은디'라고 해도 입에 착 붙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나를 보면 힘이 난다고 해서 '비타민 DJ', '비디'도 생각해봤다.

Q 평소에는 어떤 음악을 듣는지, 앞으로 어떤 음악을 소개하고 싶은지?

요즘 영화 음악에 푹 빠져있다. 특히 OST와 영화의 장면이 맞아떨어질 때 큰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 음악을 하는 분들도 모시고 싶고, 아이브,

르세라핌과 같은 아이돌 그룹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다.

Q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은지의 가요광장>에서만 보여 줄 수 있는 차별화된 모습은?

나만의 개인기와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2살의 DJ 이은지'라는 본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캐가 있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청취자들의 사연, 문자를 보고 거기에 맞춰 다양하게 톤을 바꿔 연기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게 <이은지의 가요광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장점이자 차별화된 모습이라 생각한다.

Q 청취율 1위 공약은?

만약 동시간대 라디오 청취율 1위를 하게 되면 KBS 사장님 앞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를 선보이겠다. 원래 높으신 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거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1위를 하게 된다면 사장님께 찾아가서 목례만 하고 랜덤 플레이 댄스를 시원하게 추겠다.

Q 앞으로 <이은지의 가요광장> 진행 계획은?

보통 직장인들은 '3, 5, 7'이라고 3년, 5년, 7년차에 한 번씩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던데, 나의 목표는 3년이다. 일단 3년 동안 <이은지의 가요광장>으로 청취자들과 많이 소통하겠다. 한낮의 비타민, 한낮의 아르기닌, 한낮의 홍삼, 한낮의 유산균, 한낮의 오메가3, 한낮의 엽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시대에 '진짜 가족'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정덕현
문화평론가

결혼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 육아 같은 문제들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로 '인구 절벽'의 위기에 도달한 우리에게 중대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뜨거운 이슈가 드라마의 주요 소재였던 시기는 웬만큼 지나간 게 사실이다. 이런 이슈를 다룬 가족 드라마들도 이전 드라마들을 답습하며 전형성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KBS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는 제목 자체에서 마치 이런 드라마들에 도전하려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이 시대에 맞는 '진짜 가족 드라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느낌말이다.

하지만 제목과 상반되게 <진짜가 나타났다>는 가짜 계약 결혼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신의 딸이 비혼모라는 사실에 절망하는 엄마 때문에 거짓으로라도 배 속 아기의 아빠를 만들려는 오연두(백진희 분)와,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하려는 비혼주의자 공태경(안재현 분)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가짜 연인이 되어 '계약 결혼'을 하게 된다. 적당한 시기에 갈라질 것을 전제로 부부가 된 이들은 정체가 발각될 위기들을 넘기기 위해 공조하는 사이가 된다. 이런 위기를 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은 점점 진짜 부부가 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진짜가 나타났다>가 그려내고 있는 결혼관은 아이를 통해 혈연으로 묶이는 가족의 틀을 벗어나 있고, 비혼주의라고 해도 어떤 상황으로 인해 맺어진 관계의 인연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오연두가 가진 아기의 친부가 따로 있고 혈연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아기의 아버지이자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진짜가 나타났다>는 KBS 주말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문법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가족드라마는 이 시대에 다양해진 가족의 양태를 끌어안으면서 '무엇이 진짜 가족인가' 질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연두와 공태경의 사례도 그렇지만, 이 드라마에는 아이를 둘러싼 여러 가족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잘 나가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아이가 없어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염수정(윤주희 분) 부부는 물론이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는 공지명(최자혜 분) 부부도 등장한다. 또 오연두의 동생으로 어린 나이에 미혼부로 살아가는 오동욱(최윤제 분) 같은 '고딩엄빠'도 빼놓을 수 없다. 흔히 생각하는 통상적인 범주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며 그 범주를 벗어난 이들 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는 에둘러 말하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시어머니인 이인옥(차화연 분)과 며느리인 오연두가 보여주는 새로운 고부의 모습이다. 과거라면 '고부'는 갈등의 상징이었지만, 미혼모로 공태경을 가진 채 결혼한 이인옥은 이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대 사람들의 배척 속에서, 같은 상황에 놓인 며느리 오연두와 공감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고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공감과 연대를 통해 탄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진짜'는 사실 오연두의 배 속 아기의 태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은 바로 이 아기의 탄생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여러 함의를 담고 있다. 공태경에게나 그 가족들에게 이 아기는 실제로는 '가짜'이지만 결국 '진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어찌면 우리 시대가 끌어안아야 할 '진짜 가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연 이들에게 가짜로 시작했던 '진짜'는 진짜로 '진짜'가 되어갈 수 있을까. 제목이 주는 역설적인 의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드라마다.



새 예능프로그램



'자급자족 힐링 리얼리티'

세컨 하우스 2



<세컨 하우스>는 시골에 방치된 빈집을 연예인 출연자들이 직접 리모델링 한 뒤 그곳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힐링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송되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시즌1에 이어, 6월 1일부터 방송될 시즌2에서도 출연진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일손을 보며며 온정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도시 생활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의 골칫덩어리였던 빈집은 새로운 삶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출연자들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빈집을 찾고 리모델링 하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성껏 리모델링한 빈집은 시즌2 방송이 끝나면 해당 지자체에 기부된다.

시즌2에서는 결혼 30년 차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인 최수종, 하희라가 전라

북도 진안군의 산속에 안식처를 꾸려 '전원생활의 로망'을 실현하고, 절친 케미를 뽐내는 배우 주상욱과 조재윤은 충청남도 서산에서 '자급자족 느린 삶의 미학'을 보여줄 예정이다. 시즌1과는 달리 시즌2는 두 지역의 팀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 과제를 통해 서로 교류하며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보는 재미가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을 맡은 임덕순 PD는 "시즌2는 빈집 리모델링을 진행함에 있어 출연진들의 참여와 선택의 폭을 넓혀 재미와 정보 제공 모두 시즌1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면서 "출연진들이 집을 리모델링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담아냄으로써 시청자들이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 밝혔다.

▶ 첫 방송 6월 1일 / 매주 목요일 밤 9시 45분 **KBS**

“안동방송국에 뉴스 보도 기능 회복이 필요한 이유”

KBS 안동방송국 시청자위원으로서 지역방송국이 해야만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 19분 만에 26명이 연기로 질식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 뒤로 언론에서는 요양병원의 부실운영과 환자 인권침해에 관한 질타가 연일 계속되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컸던 데는 단지 화재가 컸기 때문만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간병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었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간병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환자 몇 명당 간병인을 두어야 한다는 인력 규정이 없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은 요양병원을 단순 비판하는 데만 열중했다.

이 사건 당시 나는 KBS 안동방송국 기자들에게 “요양병원을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며 제보를 했다. 당시 내가 안동에서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는 2013년부터 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존엄 케어, 즉 4무(냄새무, 낙상무, 외상무, 욕창무) 2탈(탈액제대, 탈기저귀)운동을 실천해온 터였다.

안동방송국에서는 취재 뒤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존엄 케어’를 앞으로 한국 요양병원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내용은 전국적으로도 보도됐고 이후 <시사기획 창> 등 중앙프로그램에서도 애타튀 존엄 케어 현장을 취재 보도하는 등 ‘요양병원의 나아가야 할 길’을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한 관심이 이어지길 7년,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고, 현재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2024년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지역 방송국의 뉴스 보도로 시작되어,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간병비 부담 없이 양질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한 것이다. 바로 ‘지역방송의 나비효과’라고 할 수 있다.

KBS 안동방송국에는 이러한 순기능을 해온 뉴스 보도 기능이 존재했는데, 아쉽게도 2020년도부터는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그 기능이 없어지고 7시, 9시 뉴스는 대구경북 뉴스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전에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사건 사고와 미담 사례 등 소식을 매일 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며칠에 한 번꼴로만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다. 당연히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KBS를 시청하지 않게 된다.



이윤환
안동방송국 시청자위원 /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중앙뉴스는 KBS가 아니라도 타 방송을 통해 24시간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안동 지역뉴스는 KBS 안동방송국이 아니면 접할 수 없다. 지역뉴스는 중앙방송 입장에서는 하찮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존엄 케어’ 사례에서와 같이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지역뉴스가 축소된 현재는 지역방송국에 이런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공영방송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KBS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지역뉴스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의 소중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적자가 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지만, 지역 정보를 나누고 활용하는 필수기능을 줄인 것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 소멸화란 말이 떠오른다. 시골에 빈집이 늘어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 장면이 떠오른다. 지방 소멸화에 KBS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방의 도시가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KBS 안동방송국의 뉴스 보도 기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아시나요? 보석 같은 지역 프로그램

‘뚝뚝뚝뚝’ 새롭게 ‘공작’하는 즐거움

다큐공작소



2021년 1월부터 8개월여간 시즌1 방송 이후 올해 2월 1일부터 새롭게 시즌2를 시작한 <다큐공작소>는 그야말로 목공소에서 뚝뚝뚝뚝 ‘공작’을 하듯 소소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다큐공작소>는 충북의 역사, 인물, 환경, 문화 등을 참신한 시각으로 조명하며, 주제뿐만 아니라 기획에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하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림책 이야기, 12년 만에 야야 꿈을 이룬 프로축구단 충북청주FC의 좌충우돌 창단 도전기, 식목일을 맞아 다시 생각해보는 ‘푸른 숲을 완성하는 조건’, 정지용 시인의 시 ‘유선애상’을 미스터리를 풀어가듯 흥미진진하게 분석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에는 광복 78주년을 맞아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건

물, 지명, 학교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한 달간 기획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제작진은 “다양한 실험을 즐길 수 있어서 신나고, 평소 다루고 싶었던 실험적인 주제들에 접근하다 보면 연출에 대한 갈증이 풀린다”면서, “제작진의 유쾌한 상상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 시청자에게는 ‘어? 저런 주제도 다룬다고?’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만드는 이와 보는 이가 모두 즐거운 <다큐공작소>의 새로운 공작을 기대해본다.

**젊은 뉴스,
힘 있는 뉴스**

주요 뉴스 앵커 교체

〈뉴스7〉, 주말 〈뉴스9〉 등 KBS 주요 뉴스의 진행자가 5월 1일부터(주말 〈뉴스9〉는 4월 29일부터) 새 얼굴로 바뀌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기자와 아나운서로, 더 젊고 힘 있는 KBS 뉴스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성규 아나운서

하루를 담는 한발 빠른 종합뉴스 〈뉴스7〉의 새 얼굴은 강성규 아나운서다. 강 아나운서는 2016년 입사해 〈도전 골든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등을 거치며 안정감 있는 진행 능력을 보여줬으며, 정통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전달력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박소현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정보와 사건사고, 주요 이슈를 갈무리해 하루를 정리하는 1시간 빠른 종합뉴스 〈뉴스7〉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임재성 기자

〈뉴스12〉의 새 앵커 임재성 기사는 2005년 입사한 중견 기자로 사회부와 경제부, 탐사보도부 등을 거치며 끝까지 파고드는 근성과 현장성을 살린 보도로 여러 기자상을 받았고, 최근까지는 보도본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기후위기팀장으로 활약했다. 가장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간대인 정오에 방송되는 〈뉴스12〉는 이승현 아나운서의 차분한 진행과 임재성 기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각종 속보와 재난 상황 대응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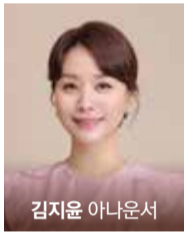
박주경 기자

박지원 아나운서와 함께 주말 〈뉴스9〉을 책임지고 있는 박주경 기사는 2000년에 입사한 24년 차 기자로, 취재와 뉴스 진행 두 분야를 모두 아우른 베테랑이다. 얼마 전까지 사회부장을 맡아 굵직한 특종들을 길어 올렸을 뿐 아니라 공동취재부, 정치부, 문화부 등 폭넓은 취재 경험에서 체득한 넓은 시야와 냉철한 분석이 강점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 봄까지 4년간은 〈뉴스광장〉 앵커로 아침 종합뉴스를 이끌었다.



이재석 기자

주말 〈뉴스9〉을 진행하며 거침없는 인터뷰를 선보인 이재석 기사는 데일리 시사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사는 2005년 입사해 탐사보도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한국기자상과 한국방송기자 대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취재·제작 능력도 인정받은 바 있는데,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과 진실에 접근하는 노련한 진행은 〈사사건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김지윤 아나운서

분야별 주요 최신 소식을 생생하고 발빠르게 전하는 〈뉴스5〉의 새 얼굴은 김지윤 아나운서다. 김 아나운서는 2002년 입사한 이후 〈뉴스7〉과 〈주말 뉴스광장〉 등 주요 뉴스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뉴스월드〉 등의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생방송에서 안정적이고 노련한 진행 능력을 보여왔다. 김 아나운서는 배장복 아나운서와 함께 빠르고 진정성 있는 〈뉴스5〉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지원 아나운서

친근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뉴스를 표방하고 있는 2TV 〈아침뉴스타임〉은 정지원 아나운서가 맡았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정아나운서는 2011년 입사한 뒤 올림픽, 월드컵 중계방송 뿐만 아니라 〈9시 스포츠뉴스〉, 〈비타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상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뉴스로 매일 아침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단신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 상업화 우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면 재원이 대폭 감소한 공영방송이 상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언론정보학회와 KBS는 5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영방송 자원 구조의 정치적 독립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납부율이 하락하고 징수 비용은 증가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입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물론 과거부터 이어진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광고 수익 등 상업적 자금은 편성의 상업성을 강화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지율학부 교수는 “분리 징수 시도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힌 뒤 “국민제안”을 통한 대통령실의 의견수렴은 정치적 호도”라며 “이를 전체 국민의 여론으로 볼 수 없고,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사안을 여론조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김의철 사장, ABU 이사회 진행... 서울 총회 홍보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의철 사장이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 115차 ABU 이사회를 진행했다.

김 사장은 아흐메드 나딤 신임 ABU 사무총장으로부터

향후 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뒤, 회원사들과 함께 국제기구 지위 관련 면세 혜택 및 해외 파견자 비자 문제 등 ABU가 직면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KBS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60차 ABU 총회 개최 계획 등을 상세히 홍보했다.

KBS·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시대 선도’ 업무협약



KBS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월 14일 KBS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할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 및 이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과 홍보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코미디인가 신파인가, 아쉬운 뒷맛의 <드림>



포스터만 봐도 <드림>은 '뻔히 아는 맛'을 약속하는 영화처럼 보인다. 개념 없는 전직 축구선수가 이미지 세탁을 위해 노숙자 축구팀의 감독을 맡아 월드컵에 나간다니. 축구선수는 박서준이 연기하고, 이들의 사연을 소개해 '대박'을 치려는 다큐멘터리 PD로는 아이유가 나온다는 것까지 알고 나면, 이미 영화 한 편 다 본 기분이 든다. 두 주연이 티격태격 다투며 통통 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구라곤 해본 적 없는 노숙자들의 좌충우돌이 영화의 웃음을 담당하며, 마지막엔 그래도 피 끓는 경기 장면을 통해 감동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예상이 일사천리로 펼쳐진다.

이런 '아는 맛'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비슷한 결의 영화 <국가대표>에 대해 황진미 평론가가 내린 평가처럼, '관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작품은 나름의 미덕이 있기 마련이니까. 하나의 서사가 수없이 반복되었다는 건 그만큼 재미와 감동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연출자가 이병헌 감독이라면 관객은 실패

를 예상하지 않을 것이다. 천육백만 명의 선택을 받은 <극한직업> 뒤 첫 차기작인데, 못해도 기본은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뚜껑을 연 <드림>은 실망스럽다. 감독의 장기로 꼽히는 언어유희가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으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빚어냈기 때문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으레 할 법한 말과는 반대되는 말로 허를 찌르거나 말재간을 이어가는 식인 이병헌 감독의 유머 스타일은 <극한직업>에 그럴싸하게 어울렸다. 닭 튀기는 형사들 이야기에 그보다 걸맞은 유머가 있겠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인물들은 서로 편지를 주거나 자조하며 소위 '말맛'을 살린 재치 있는 대사를 빠르게 주고받았다. 투덜대다가도 손님만 오면 '어서 오세요'를 외치며 손뼉까지 치던 형사들의 능청스러운 태세 전환은 우스웠지만, 소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밥벌이의 애환'이 깔린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드림>에서 이 같은 패턴은 진지한 스포츠 서사가 무르익는 것을 방해한다. 홈리스 월드컵을 알리고 싶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인 만큼 코미디를 뺀 나머지 절반은 스포츠 드라마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마치 '뻔한 스포츠 영화가 되지 않겠다'라는 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냉소적 말장난은 영화가 끊어올라야 할 때 번번이 열기를 식힌다. 하이라이트여야 할 경기 장면 역시 진지함과 거리가 멀다. 지켜보던 외국인 관중들이 손뼉을 치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장면은 과장된 연출 탓에 시



강푸른 기자의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헛말로 '국뽕' 영화의 패러디가 아닌가 싶을 만큼 당황스럽다. 등장인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신파조 장면들과 어울리지 않는 건 물론이다.

감독은 분명 2010년 브라질 홈리스 풋살 월드컵에 참가한 한국 노숙인들의 실화에 감동 받아 영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오랜 사전 조사와 홈리스 월드컵 동행 취재 등 10년 가까이 영화에 매달렸던 동력은 감독 스스로 SNS에 썼듯 "소외된 곳을 비추려는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이다. 구단 사무국장이 후원을 거절한 대기업 홍보팀에 항의하는 장면처럼 진심이 묻어나는 대목도 있다. 그러나 영화는 곧 상품이다. 감독이 "익숙한 형식 안에 허용 가능한 재미를 배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택한 수는, 이 영화가 팔리는 상품이 되는 데 약보단 독이 됐다. 온전히 노숙인 캐릭터들의 도전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작품은 아무도 봐주지 않을 거란 생각, 그러므로 끊임없이 웃겨야 한다는 강박이 느껴지는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아쉬움을 남긴다.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세이프



5월 16일 오후 2시엔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매달 15일이면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소로 피하던 그 훈련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주로 화재 등 재난 대피 훈련 위주로 하거나, 코로나 19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6년만에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대피하고 차량 통제까지 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되진 않고, 주로 관공서와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울릉도에서 실제 공습경보 사태를 겪은데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민방공 훈련은 통상 '민방공 경보' 사이렌을 울리면서 시작됩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참가자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피해야 합니다. 이번 훈련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나 일터 주변에 몸을 피할 지하대피소가 어디인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대피소 위치는 모바일에선 '안전디딤돌' 앱을 깔고 '대피소 조회'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흑석동에는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가장 가깝게는 집에서 270m

6년 만에 부활한 '민방공 훈련' 그날 KBS도 훈련합니다.



가량 떨어진 중앙대학교 약학관 지하 주차장이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더군요.

민방공 상황 때의 대피소와 지진 상황 때의 대피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민방공은 지하 공간으로, 지진은 탁 트인 공간으로 피해야 하니까요. 상황별로 유사시에 나와 내 가족이 피할 동네 대피소는 어디인지 한 번쯤 찾아보시고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민방공 훈련 날에 KBS는 특보 방송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KBS는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와 공습경보 등 민방공 경보 발령 시 10분 안에 뉴스특보를 시작해 30분간 특보를 지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달 보도본부 재난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전사적인 모의훈련이나 부분 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진이나 산불 등의 재난 발생 시 뉴스특보 절차 등을 훈련해왔지만, 민방공 특보 방송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10분 안에, 생방송 특보를 열 수 있을까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해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 두었다가 유사시 이를 방송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마라도

에 발생한 지진 때는 이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생성 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2021.12.14. 지진 발생 5분여 만에 자동 생성된 콘텐츠로 방송할 당시의 화면

하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재난 시에나 민방공사태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적시에, 충분히 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는 재난 발생 상황에 어떻게 하면 신속히 재난방송을 열고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지, 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챗GPT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요약하면 '대응 체계 마련과 전담 인력 배치,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담할 사람들을 배치하여 24시간 상시적 대응 시스템을 만든 뒤 계속 교육과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습경보 같은, 매우 드물지만 일단 발생하면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취해야 할 행동을 익히기 위해 '민방공 훈련'을 하는 것도 같은 원리라 생각됩니다.

장바구니집사들

청년 건강 먹거리 프로젝트



5월 24일 첫방송 예정인 <장바구니 집사들>은 냉동 인스턴트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식재료와 레시피를 담은 장바구니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최소한 하루 한 끼는 건강한 '집밥'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절약한 식비만큼 자신의 꿈에 투자하면서 진정한 자립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장바구니 집사들>의 취지다.

보육원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직접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인생 선배로서 말동무가 되어줄 집사장 역할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배우 한혜진이 맡았다. 친근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송인 장성규와 무명 가수에서 트로트계의 왕자로 자리매김한 장민호는 한혜진과 함께 청년들을 찾아가 고민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장바구니 집사들>은 KBS가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청년 먹거리 솔루션 프로젝트로, 장바구니를 매개 삼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 시대 청년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사회적인 공감대와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을 맡은 김자영 PD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많은 이들이 끼니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부모의 보호 없이 성장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건강하게 먹기를 바라며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외로웠던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삶에 조금씩 훈훈한 바람이 불길 바라며 그 여정에 시청자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본방 사수를 당부했다.

▶ 첫방송 5월 24일 / 매주 수~금요일 밤 10시 **KBS11**